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05

하늘 꼭대기까지

쌓은 탑

(창세기 9:18~11:9)



여러분은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나요?

**“우리 성경을 읽어요”**

이 말을 영어로 하면, **“Let’s read the Bible.”**

중국어로 하면, **“읽먼 두성징바.”**

또 스페인어로 하면, **“Leamos la Biblia.”**

이렇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모두 다른 말을  
사용하고 있죠.

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쓰기 시작한 걸까요?

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거예요.

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.

이름은 셈, 함, 야벳이었죠.

시간이 흘러 셈, 함, 야벳도 자녀들을 낳았고  
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, 또 자녀들을 낳고  
다시 이 땅에는 홍수 이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.

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 
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배울 필요 없이  
“안녕?” 하고 인사를 건네면 누구나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었죠.

그런데 어느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.

**“우리가 사는 이곳에 크고 높은 탑을 세워서  
하늘까지 닿게 만들어보는건 어떨까?  
그 정도로 높~은 탑이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 
우리를 대단하게 볼거야.”**

**“와!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!  
그 탑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올려다 볼테고  
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거지.  
마치 하나님처럼 위대해지는 기분일거라구! 헤헤헤!”**



그 날부터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.  
한 장, 두 장 벽돌이 쌓이더니 탑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죠.  
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.

**“더! 더! 더 높~이 쌓읍시다! 세상 어디서나 이 탑이 보여서  
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말이요!  
하하하!”**

마침내 탑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듯 엄~청나게 높아졌어요.  
사람이 아무리 고개를 뒤로 젖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.

사람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탑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.  
심지어, 눈에 보이는 높은 탑을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 
그 앞에서 소원도 빌고, 제사도 지내고.  
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!

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?

맞아요. 하나님은 결코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.

**“에휴.. 저, 저, 저 녀석들 하고는.  
역시 사람들이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욕심만 커지는구나.**

**나만 믿고 따라준다면 누가 어디서 살든 내가 다 지켜주고  
이름을 높여줄텐데.**

**저희들끼리 스스로 돋보이고 싶어서 저리도 저리도  
욕심을 부리는구나. 정말 한심하구나. 정말 한심해!”**

**하나님께서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.**

그렇다고 지난번처럼 큰 홍수를 일으키시지도 않았죠.  
그러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와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셨었니까요!  
그대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셨답니다!

어느 날 아침,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탑을 쌓기 위해 모여들었어요.  
그런데,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.  
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!



**“어? 아저씨 나오셨어요?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시는데요?”**

**누가 이렇게 친근한 인사말을 건네도**

**“뭐야?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 
너 지금 나한테 오징어 꼴뚜기 닮았다 그랬지?  
너 한번 혼나볼래?”**

**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오해가 생기고.  
결핍하면 싸우기 일쑤였어요.**

**“에이, 말도 안 통하는데, 그냥 탑이나 쌓읍시다! 어서요!”**

**누가 일을 하자고 재촉해도**

**“아이 그러게요.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!  
이런 날엔,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행복이죠!”**

**엉뚱한 대답만 돌아왔죠.**

**“뭐라고? 다시 한번 말해줘!”**

**부탁을 해도, 그 부탁조차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.**

사람들은 늘 말다툼하기 바빴고  
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몰라할 뿐이었죠.  
다들 기분이 잔뜩 상해버려서  
결국 각자 뿔뿔이 흩어져버렸습니다!

여러분! 이게 오늘날까지도 세계에 수백, 수천개의  
각기 다른 말이 생기게 된 이유예요.  
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 
멀리멀리 흩어져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된거죠.

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 
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 
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~!